민주, 청목회 털고 '대포폰 전면전' 나서

검찰소환 응하되 '대포폰 국조'로 정국 타개
야5당 특검법 발의… 국회의장 입장 표명 요구

검찰의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반발, 예산 심사 거부에 들어갔던 민주당이 18일 검찰 소환을 받아 들이는 한편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로 맞불을 놓으며 정국 타개에 나서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소액 환급후원금 사건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민주당은 오늘부터 검찰수사를 당당히 받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표적, 기획사정에 당하는 의원들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지만 관련 의원 5명은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고 보좌관들을 출석시키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하는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명박 대통령도 정권의 불법적 행위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떳떳하게 수용해야 한다"며"이를 거부한다면 소액 후원금 과잉 수사의 배경이 불법적 공안 통치를 은폐하려는 거대한 불법 행위임을 분명히 하면서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 100시간 동안 국회를 떠나지 않고 당대표실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이명박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사실상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5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을 갖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하고 검찰의 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 수사 등에 대해 국회의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는 한편 오후에는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청와대와 검찰이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은폐하는 사이 이번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불법 사찰을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났다"며 "이는 군사정부 때나 있었던 국민통제요, 공장 정치요, 야당 탄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국정조사와 특검 즉각 수용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 즉각 파면 ▲야당 탄압 수사 즉각 중단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대응은 검찰 수사에 무조건 불응하며 예산안 심사까지 거부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정면 돌파로 야당으로 쏠리는 의혹은 털고 가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선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여권을 압박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 항의 방문한 민주 의원들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청와대앞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청목회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포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감세논쟁' 불협화음 잇따라

나경원 "부자감세 프레임 갇힌 원칙없는 논의"
정두언 "아주 건전하고 생산적… 소비 활성화"

감세논쟁으로 한나라당 지도부 간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각기 다른 주장을 하며 찬반논쟁을 벌여 22일로 예정된 감세관련 정책의총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최고위원은 "감세논쟁은 야당이 만든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힌 철학과 원칙도 없는 논의"라며 "포퓰리즘 유혹에 넘어가 무책임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감세철회론을 비판했다.

그는 "부자감세라는 적군의 칼이 우리 내부를 찌르니 정부·여당이 겁을 먹고 끌려가고, 현재 검토되는 대안도 부자감세에 화들짝 놀라 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최고세율을 2년 유예한 만큼 이를 뒤집을 상황이나 시기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나 최고위원의 말에 개인적으로 동감하며, '오늘의 말'에 들어갈 만큼 명언을 했다"며 "대외여건을 볼 때 감세조정은 이번에 하지 않아도 되고 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고 가세했다.

이에 반해 감세철회를 주장해온 정두언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이후 당은 고시제도 폐지, 은행대출, 감세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고, 이게 정책정당으로 가는 길"이라며 "감세논쟁은 아주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쟁"이라고 반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에 앞서 열린 민본21 토론회에서도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와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감세가 옳다고 하는데 현재 소득세·법인세는 최고세율대로 부과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현재 감세논의는 감세를 통해 소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정책기조에 절대 위배되지 않는다"며 "유예된 최고세율을 계속 유지하자는 것은 감세철회가 아니고 감세 기조의 속도완화인 만큼 이 문제를 개인 철학이나 소신의 문제로 지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자감세 철회땐 지방재정 5조4000억 증가"

민주 이용섭 의원 주장

이른바 '부자감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할 경우 지방재정수입이 5조4000억원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대표 이용섭·배영식 의원)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 위기의 본질과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재정 위기의 본질은 이명박(MB)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의 감소에 있다"며 "중앙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수입이 2012년까지 18조6000억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 시 30조4000억원)이나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2008년도 20조2000억원 흑자였던 지자체 통합재정수지가 2009년에는 7조1000억원 적자로 전환됐고 지방채 잔액도 2009년에 25조6000억원으로 2008년 대비 32.9% 급증했다"며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2009년에 42조7000억원으로 2008년 대비 31.5%(10조2000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 위기 해소방안과 관련, "지방재정 수입확대를 위해 우선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하며 이 경우 2012~2014년까지 최소 11조원의 국세 수입 증가로 지방교부세 2조1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000억원, 지방소득세 1조1000억원 등 5조4000억원 지방 세입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부분 여권發… 치열한 권력투쟁 반증

■ 민주 대포폰·사찰 폭로공세 '정보원'은 누구

민주당의 현 정부 핵심부를 겨냥한 폭로가 계속되면서 그 정보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과 '대포폰 의혹'을 필두로 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개입 의혹 등 새로운 폭로를 쏟아냈다. 이 의혹은 대부분 '여권발(發)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청와대로 올라갔던 검찰 보고서가 흘러나왔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찰 관련자의 수첩까지 증거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권 내부, 그것도 상당한 권력 중심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리지 않았다면 야권이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자료들로 평가된다.

정가에선 이런 자료 유출을 여권 내 권력투쟁의 산물로 보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라인과 반(反)이상득 라인이 아직도 대립 중이고 이런 와중에서 자료가 새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상득 의원 라인은 민간인 사찰 재수사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두언 의원 등 한나라당 최고위원 7명 가운데 5명과 '민본 21' 등 소장파들이 재수사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부에서는 호남인사들이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말도 들리나 대부분 권력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고위관계자는 18일 "요즘 여러 루트를 통해 정말 많은 제보가 오고 있다"며 "개중에는 출처가 분명치 않아 쉽게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많으나 상당수는 팩트가 확실한 내용들"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도 "요즘 민주당이 터트리는 사안들은 여권 내에서도 핵심부만 접할 수 있는 자료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여권 내 분열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보들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대포폰 의혹' 등 청와대의 사찰 개입설을 연이어 터트려 당내에서 '이대포'란 별명을 얻은 이석현 의원도 직접 여러 인사들을 접촉하며 많은 정보를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의원은 제보자와 휴대전화 대신 공중전화를 이용하는가 하면 이메일, 팩스 이용은 자제하는 등 보안 유지를 위해 '007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정보 수집 활동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권의 정보가 야당에 흘러나오면서 민주당이 검찰의 야당 의원 사정에 맞불을 놓기 위해 추가 폭로를 준비 중이라는 설이 확산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이영호 외국 도피공작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8일 야권이 민간인 불법 사찰의 핵심인물로 지목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민간인 사찰, '대포폰 게이트'의 중심인물인 이 전 비서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키려고 하는 공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5당 원내대표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청와대가 어떻게 제1야당 대표인 정세균 대표를 사찰할 수 있는가. 형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사찰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감에 앞서 지난달 6일 출국했다가 27일 귀국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강기정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과 관련,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관련설을 주장한 데 대해 "실제 확보된 자료가 더 있느냐"는 질문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도 봤다"며 "(공개 문제에 대해) 조절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지도부 오늘 여수엑스포 방문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여수세계박람회 건설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19일 여수를 방문한다.

안 대표 일행은 이날 오후 여수공항에 도착한 뒤 건설현장을 방문해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으로부터 추진 현황 등을 보고 받고 홍보관을 참관한다.

또한 아쿠아리움 등 주요 시설물 공사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공사관계자 등을 격려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안에 화제다 얼굴이며 몸매가 모델을 빰치는데 거기에다 흔들며 떨어주니 찰랑거리는 머릿결 보드랍고 말랑거리는 피부 깜박이는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섬세한데 키는 1m50이 되며 섹시하니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린다. 본능적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범죄 예방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폭발로 불티가 난다.

주문량 폭주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02302-469931(정의철)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사 이 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

생각보다 좋은 비누 펑미인
펑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 의과학 연구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몸 속 70% 물과 외부에서 씻는 물을 동조시켜 피부통로를 열리게 하여 몸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 입니다.
✻ 주요성분
• 특수 숙성한 식물성 유지
• 살구씨 오일 및 분말
• 100% 천연향 로즈마리
• 천연신소재 HJ-1,2
• 글리세린

✻ 사용범위
• 모든 환자의 전신 목욕
• 유아목욕, 노인 냄새 제거
•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 잦은 화장을 하는 여성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무좀, 습진, 비염)
•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
• 입냄새, 입술터짐, 이가 시리고 아픈사람
• 농약을 다루는 사람의 목욕
비누 사용시 유의사항
- 5분간 2회 이상 비누 맛사지
- 보관시 다른 비누와 따로 보관
- 처음사용시 5분 2회 손 • 발 맛사지 후 사용
◆ 광주 · 전남 · 북 판매점/판매원 모집 ◆
상담문의 ☎ 010-3231-3665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741번지
◆등록번호 616-81-68236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보세요!
뜨아아~ 목포출발, 녹동(고흥)출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3일 89,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 등반 + 1일관광도 가능합니다.(₩99,000원)
잠수함, 유람선,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목포 출발 "목카투어" 89,000원
★ 일정
· 1일째 : 목포국제여객터미널(9시 또는 14:30)출발-호텔1박
· 2일째 : 제주관광-호텔1박
· 3일째 : 제주관광-제주항(16:50)출발(단, 일요일은 16:30출발)
★ 출발일 : 매일 출발
★포함내역 : 왕복선박,숙박2박(4인1실),조식2회,중식2회,석식2회,차량료,입장료,주차
고흥(녹동)출발 "녹동투어" 89,000원
★ 일정
· 1일째 : 녹동 남해고속터미널(9:10)출발-호텔1박
· 2일째 : 제주관광-호텔1박
· 3일째 : 제주관광-제주항(17:10)출발
★ 출발일 : 매일 출발(일요일 별도 문의)
★포함내역 : 왕복선박,숙박2박(4인1실),조식2회,중식2회,석식2회,차량료,입장료,주차료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한라산 등반 15,000원
광주 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69,000원(주중+주중)
179,000원(주중+주말)
※ 유류 할증료 별도,성수기 기간 별도 문의
제주 올레길 스페셜 투어 1일 15,000원
[1박 2일 목카투어] 79,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3박 4일 목카투어] 119,000원 (한라산등반 + 2일 제주관광)
[2박 3일 목카크루즈 + 항공투어] 129,000(주중) / 149,000(주말)
"목카렌트카투어" 107,000원 (4인 기준)
★일정 - · 1일째 : 목포국제여객터미널(09:00)출발 - 제주항 도착 - 호텔 1박
· 2일째 : 자유관광 - 호텔 1박
· 3일째 : 자유관광 - 제주항(17:30) 출발
♠ 성수기 기간 별도 문의 ♠
● 농 협 ● 정정아 1079-12-183903
배편, 호텔, 펜션, 렌트카 예약
문의 : ☎064-744-1109 (주)제주무궁화관광 www.jejumt.net | 협찬 남해고속 씨월드고속훼리